

신안 '섬 바나나' 첫 출시 기념 할인행사

오는 24일까지 200세트 한정 판매

신안군은 비금도의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무농약 섬 바나나 출시 기념 할인행사를 '신안1004물'에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섬 바나나는 해풍을 맞고 자라 자연의 진미를 그대로 담은 존속한 식감과 높은 당도가 특징이다.

신안1004물에서 '바나나 1+1 판매'란 가격적인 조건으로 단 5일간 소비자에게 총 3kg의 바나나를 1만 4900원에 무료 배송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24

일까지 200세트 한정된 수량으로 진행되며, 선착순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1004물 섬 바나나 출시기념 기획전을 통해 신안 비금도 섬 바나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들에게는 최고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안군의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강복록 기자

완도, 겨울철 대비 도로 제설 태세 돌입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 중점 관리 기관' 설정

완도군은 올겨울 추위가 예년보다 이른 이달 중순부터 시작됨에 따라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 대책 중점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군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먼저 염화칼슘 살포기 18대 및 제설 삽날 16대 정비·점검 완료, 염화칼슘 131.5t과 제설 운용 차량 3대를 추가로 확보해 폭설 대비에 철저히 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각 부서, 읍면 제설

담당자,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부서별 제설 담당 구역 지정, 효율적인 제설 작업, 작업 시 교통 소통 대책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완도교육지원청, 완도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에게 폭설 시 등하교 시간 조정, 환자 긴급 후송, 고립지 인명구조 등을 안내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해남, 홀로사는 어르신 반려로봇 '효돌' 보급

대화 기능·일정관리 등 맞춤형 생활관리



해남군은 홀로 사는 어르신께 인공지능(AI) 기반의 반려로봇을 보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 반려로봇 '효돌'은 몸체에 센서가 내장돼 만지면 프로그램이 작동돼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어린이의 모습을 본떠 만든 봉제인형으로, 기존의 반려로봇보다 어르신들이 거부감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상황에 따른 맞춤 대화와 약 복용 시간, 일정 관리 등 어르신들의 일상

생활 관리를 돕고, 노래·퀴즈·종교 생활 등 다양한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정서와 건강을 살릴 수 있다.

특히 24시간 응급상황 모니터링 관제 시스템과 연계되어 일정시간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응급 구조 요청도 할 수 있어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군당 50명씩 총 22개 시·군 1,100명의 독거노인에게 보급한다.

해남군에서는 노인맞춤돌봄 대상자 중 질병·인지능력 등 평가를 통한 우울은둔형 독거노인을 보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올해 연말까지 보급 완료할 계획이다.

/해남=김동주 기자

진도 농수산물식품, 미국 시장에 500만달러 수출

한남체인·키트레이딩과 수출 업무 협약

미역·김·꽃게·울금 가공식품 등 첫 선

진도군은 지난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남체인, 키트레이딩과 진도 농수산물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희수 진도군수와 박남규 농수산유통사업단장으로 구성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개척단의 미국 방문에 맞춰 진행된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산 쌀, 미역, 김, 꽃게, 울금 가공식품 등이 미국에 첫 선을 보이게 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우수농수산물식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첫 포문

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진도군은 밝혔다.

진도군은 이번 협약과 함께 LA 한남체인, 샌프란시스코 메가마트 등 3개 매장에서 진도군 농수산물의 홍보와 판촉을 위한 할인행사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판촉행사와 협약을 계기로 진도 농수산물의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세계적인 한국음식(K-food) 유행에 발맞춰 진도군 농수산물이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사랑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군은 앞서 지난 7월 호주에

100만 달러 농수산물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진도=박재영 기자

영암 '청년 인생 내 컷' 전남형 청년마을 공모 선정

빈집 개조로 마을호텔 조성... 관계인구 늘리고 관광기획자 양성

영암군의 '청년 인생 내 컷(cut)'이 '2023년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청년 주도 지역민 상생 모델 발굴, 지역특화산업 연계, 지속가능한 청년소득 창출 등을 지원해 청년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9개 시·군 13개 팀

이 응모해, 전문가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5곳이 뽑혔다.

선정된 사업들은 2년 동안 총 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영암의 청년마을 '청년 인생 내 컷(cut)'은 지역 빈집을 활용해 마을호텔인 여행자의 집을 조성·운영하고, 관광기획자를 양성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과 주민이 관계인

구를 늘리며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업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청년마을은 청년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다양한 영암군 정책을 연결해 청년마을이 청년과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강진, 전 군민 대상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강진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생후 6개월 이상 전 군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접종은 강진군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9개소(강진의료원, 강진아나과 의원, 오케이내과의원, 오창근의원, 연세의원, 성모의원, 우리들내과의원, 정준성내과의원, 마랑의원에서 가능하다.

6개월~4세까지는 모더나XBB.1.5 백신의 경우 8주간격으로 2회 접종해야 하고, 화이자XBB.1.5 백신은 8주 간격으로 3회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단, 5세 이상자는 이전 접종력과 상관없이 1회 접종으로 완료된다.

특히, 감염에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생후 6개월 이상 고위험군은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11월 14일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36%(4,609명)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이번 백신은 현재 유행하는 변이(XBB계열)에 대응해 개발된 XBB.1.5 화이자, 모더나 백신으로 과거 접종력과 관계 없이 마지막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면 가능하다.

서현미 강진군 보건소장은 "겨울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은 꼭 접종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기사제보 062)363-8800

호남매일 디지털신문

목포, 폐현수막 활용 '큰물고기' 자루 제작사업 추진

삼학도·평화광장·노을공원 등 청결 활동·전시



목포시가 전남도 주관의 '2023년 현수막 재활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해 큰물고기 자루 제작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목포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가 선정됐는데, 재활용이 어려운 폐현수막을 활용한 신규 사업인만큼 각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는 폐현수막을 활용해 목포시 새

마을지화와 함께 큰물고기 자루 150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큰물고기 자루를 이용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삼학도, 평화광장, 노을공원, 평화광장에서 청결활동을 진행했다.

청결활동 외에도 제작된 자루 전시와 배부도 이어진다.

시는 노을공원과 평화광장에 중형 물고기 자루와 소형 물고기 자루 30개를 오는 26일까지 전시할 예정이

다. 이를 통해 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수막 자투리를 활용한 자루 및 장바구니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세척과정을 꼼꼼히 거쳐 자루와 장바구니를 제작한 후 기획홍보를 전개하고 동부시장 등에 장바구니를 배부할 예정이다.

석유화학 소재로 만든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국내에서 연간 약 1,000만장 이상의 현수막이 소각·매립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 4만톤의 온실가스가 나오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러한 폐현수막을 활용한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실현해 환경보호에 힘쓰는 한편, 앞으로도 폐현수막을 재활용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목포=김근호 기자

해수·해조류·머드 등 16개 치유 테라피실 갖춘 해양치유센터

완도해양치유센터
Wando Marine Healing Center

팔라소폴

명상폴

해조류 거품 테라피

해조류 머드 램핑

국내 최초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2023. 11. 24.(금)

전남 완도군 명사십리61번길 94